

조선이공대 “대학 캠퍼스에서 미래 직업 미리 만나요”

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 학생 초청 캠퍼스투어
로봇·자동차·3D프린팅…진로체험 프로그램 성료

‘기술에 강한 대학’ 조선이공대학교가 지역 고교생들의 진로 탐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조선이공대는 지난 3일 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등학교 2학년 학생 59명과 인술교사 5명 등 총 64명을 초청해 맞춤형 전공탐색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캠퍼스 투어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조선이공대 학과 실습실에서 진행됐다.

학생들은 미래자동차학부, 스마트제조시스템과, 기계과, 자동화시스템공학부 등 전공 관련 학과의 실습과 직무 체험에 직접 참여하며 미래 직업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다.

각 학과에서는 △미래자동차 첨단산업 이해 △협동로봇 응용 실습 △CNC 가공 기기 체험 △3D프린팅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각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교과서 속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미래자동차학부에서는 전기차 구동 시스템을 살펴보고 첨단 차량 기술의 발전 방향을 이해했고, 스마트제조시스템과에서는 협동로봇 제어를 통해 자동화 공정의 원리를 익혔다.

또 기계과의 CNC 정밀가공 실습과 자동화시스템공학부의 제어 프로그램 실습에서는 설계에서 제작까지 이어지는 제조기술의 전 과정을 경험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학과별 교수진이 직접 참여해 전공 분야의 산업 동향과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진학 및 취업 방향에 대한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지역 고교생들에게 실질적인 진



조선이공대는 지난 3일 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등학교 2학년 학생 59명과 인술교사 5명 등 총 64명을 초청해 맞춤형 전공탐색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교 지역사회의 교육 협력 모델로서 의미를 더했다.

김영곤 입학홍보부처장은 “이번 캠퍼스투어는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적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미래 직업

에 대한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고교생들이 미래 산업을 이끌 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전남도,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최고명예대장 수상

수해 복구·구호 성금 등
인도 주의 실천·나눔 공로

전남도는 5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광주전남지사 연차대회’에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적십자 회원유공장 ‘최고명예대장’을 수상했다.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최고명예대장’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인도주의 활동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상으로 누적 기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된다. 도는 2017년 충남지역 수해 복구 지원을 시작으로 2023년 튀르키예 지진 구호 성금, 2025년 경북, 의성 지역 산불 피해 지원 등 꾸준한 기부와 나눔 활동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



전남도는 5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광주전남지사 연차대회’에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적십자 회원유공장 ‘최고명예대장’을 수상했다.

의 영예를 안았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인도주의의 등불, 대한적십자사 120주년을 맞아서 광주전남지사 연차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

다”며 “늘 어려운 이웃 곁을 지키고, 재난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전남으로 들어오게

됐고, 전남도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는 광주전남 AI 수도로 힘껏 나아가겠다”며 “AI 시대에 도 사랑과 연대를 나누는 적십자 정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렬 기자 hoibul@gwangnam.co.kr



광주 서구는 5일 청사에서 열린 ‘나눔리더100’ 가입식을 통해 고(故) 김신자씨 유족, 해양경찰관 문호준씨, 서창동 자생단체 연합회 ‘서창애운’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광주 서구, 100만원 이상 기부 ‘나눔리더’ 1호 탄생

고 김신자씨 자녀들 아파트 보증금 1000만원 전담
해양경찰 문호준씨·‘서창애운’도 100만원 씩 기부

광주 서구에 100만원 이상을 기부한 개인·단체·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나눔리더’ 1호가 탄생했다.

서구는 5일 청사에서 열린 ‘나눔리더 100(Giving Leaders Club)’ 가입식을 통해 고(故) 김신자씨 유족, 해양경찰관 문호준씨, 서창동 자생단체 연합회 ‘서창애운’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나눔리더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추진하는 ‘기부로 세상을 가치 있게’ 캠페인으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중 김씨의 자녀들은 지난 8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뜻을 기리기 위해 아파트 보증금 일부인 1000만원을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부했다.

고인은 오랜 세월 장애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이웃을 먼저 챙기고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남긴 것

로 알려졌다.

해양경찰관 문씨는 임용되기 전 교육훈련기간 동안 아껴 모은 100만원을 기부했다. 그는 “공직자로서 첫 월급보다 먼저 나눔으로 시작하고 싶었다”고 언급했다.

‘서창애운’은 최근 광주서창역세측제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 일부인 100만원을 기부해 지역공동체의 따뜻한 온정을 더했다. 이번 기부금은 조순가정·다문화 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 협력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기후원(CMS) 계좌를 통해 지속적인 기부 참여도 이어질 예정이다.

김기장 서구청장은 “나눔리더100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공동체가 따뜻하게 연결되는 첫걸음”이라며 “민관이 함께 나눔문화를 확산시켜 모두가 참여하는 행복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윤용성 기자 yof404@gwangnam.co.kr



전남대학교는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 개축’ 사업을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 개축 준공

253억 투입…연면적 9293㎡ 규모 친환경 복합 법학관

전남대학교는 2021년부터 추진해온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 개축’ 사업을 마무리하고, 최근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근배 총장을 비롯해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 박현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하재욱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류혜경 전남대 총동창회장, 문방진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동창회장 등 주요 인사와 교직원, 동문, 학생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 개축사업은 교육·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전남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추진됐다. 기존 건물(연면적 6608㎡, 지하 2층·지상 5층)을 철거하고 2023년 9월 착공에 들어가 2025년 10월 2일 준공까지 총 25개월이 소요됐다.

총사업비 253억원이 투입된 이번 개축 공사는 연면적 9293㎡, 지하 2층·지상 8

층, 최고 높이 33.9m 규모로 건립됐다.

태양광 발전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해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한 자연친화적 친환경 건축물로 완성됐다.

새 건물에는 △강의실·세미나실·정독실·학생지도센터·웰빙센터 등 교육·복지 공간 △교수연구실·법학연구소·공익·인권법센터·학문후속세대연구실 등 연구공간 △리크리올리센터(실무교육 및 지역사회 법률봉사) 등 행정지원시설이 조성됐다. 이를 통해 교육, 연구, 복지, 실무, 교류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형 법학 교육환경이 마련됐다.

정훈 법학전문대학원장은 “1호관 개축을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아, 전문분야를 개척하는 정의로운 법률가 양성이란 목표를 향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직·공장새마을운동 전남협의회는 최근 순천시 진상면 소재 대봉강 과수원에서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 농촌사랑 영농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직·공장새마을운동 전남협의회, 영농봉사

광양 대봉강 과수원서 일손돕기

직·공장새마을운동 전남협의회는 최근 광양시 진상면 소재 대봉강 과수원에서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 농촌사랑 영농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고령화와 인력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마련됐다. 봉사활동에는 오인규 도직장협장을 비롯해 시·군 직장협의회 회장단과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수확기를 맞은 감 과수원에서 감 따기, 선별 및 운반 등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를 도왔다.

대봉강 농장주 김영만씨는 “수확철에

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도와주니 큰 힘이 된다”며 “도직장협의회와 봉사 덕분에 한결 여유 있게 수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인규 회장은 “농촌은 우리의 삶과 식탁을 지탱하는 근간이지만,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이 많다”며 “직·공장새마을운동 전남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농가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영농철 일손돕기, 농산물 직거래, 농촌 재능기부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직·공장새마을운동 전남협의회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이상 농촌일손돕기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도시공사, 청년 주거복지실천단 활약 기대

3기 수료식… 정책 제안 홍보

광주도시공사는 5일 광주종합주거복지센터 ‘청년 주거복지실천단’이 올해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복지실천단’은 지역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청년세대의 주거 문제를 조사하고 정책 대안을 제안하며, 주거복지 정책 홍보와 인식 개선에 나서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3기를 맞은 실천단은 지난 7월부터 4개월 동안 △청년 주거 소식 블로그 홍보 △주거복지 인식 확산 △청년 간 교류 확대를 지역 주거복지 이해 기반을



확립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번 3기 활동에서는 지역 청년들의 실제 주거 고민을 조사하고, 대상별 상황에 맞는 주택 유형과 지원 정보를 인스타그램·블로그 등 SNS를 통해 소개해 주거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